



아우르고 보듬는 마음 없는 세상은 깜깜절벽

파주 약천사 주지
허정 스님



허정 스님은 ...
1965년 동화사로 출가, 의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6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2년 뒤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동화사 교무국장, 대구 용연사 주지, 조계사 주지, 서울 북아현동 금련사 주지(창건), 조계종포교원 연수부장, 경찰청 경승 등을 지냈다. 1995년부터 파주 심학산 약천사에서 도량 불사를 하며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외출 자제... '25시간 깨어 있는 도량' 포교 지름길

연기적 질서 속에 자신 담금질 할 때 '명품 인생'

파주출판단지와 교하신도시를 품은 심학산. 해발고도 194m의 낮은 산이지만 5곳의 등산로와 근래 조성된 둘레길을 찾는 '푸벅이 족'들이 늘고 있다. 잘 정비된 정상에서는 일산과 파주지역이 한 눈에 조망되고 한강의 유연한 흐름과 임진강 유역, 오두산 전망대와 그 너머 북한 지역의 산자락까지 볼 수 있는 요지다. 서쪽으로 떨어지는 낙조는 사시사철 아름답다.

15년 전, 그러니까 파주 출판단지와 신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당시의 심학산은 어느 야산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사람이 다니는 곳에 길이 나고 길은 삶의 애환으로 다져진다. 심학산에 난 길이 그렇다. 삶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육신과 정신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길이 생겼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더 행복한 내일을 갈망한다.

20만 교하 신도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책코스 심학산의 길들, 그 중심에 약천사가 있다. 등산로나 둘레길의 중간에 위치해 심학산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이 약천사를 거쳐게 된다. 웅장한 지장보전에 서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2008년 10월에 남북통일과 일체중생의 병고치유를 발원하며 모신 높이 13m의 남북통일약사여래대불의 임속하면서 다정한 상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한다.

약천사는 심학산에 길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따라 천천히 일구어진 도량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기술과 자본이 투입돼 푹푹푹푹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절이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좀 쑥스러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목탁 하나로 지은 절입니다."

약천사 불사를 주도한 허정(虛淨) 스님이 '목탁 하나로' 절을 지은 내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5년 야산 기슭의 자그마한 법당에 인연이 닿아 무작정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진했어요. 정진이란 게 다른 것도 아니었지요. 하루 3번 예불 모시고, 각종 기도 법회와 인연 따라 들어오는 불공에 정성을 들인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절을 비우지 않고 늘 자리를 지키며 누가 찾아와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입니다. 뭐 특별한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절지키는 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큰손'에 의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연불자들의 정성이 모이고 모여 이렇게 도량이 이루어졌고, 나는 여전히 할 일이 있으니 다행이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고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은 뒤죽박죽이다. 출가하여 절집에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글이 '초발심자경문'이다. 허정 스님은 요즘도 45년 전에 보았던 '초발심자경문'을 수시로 읽는다. 누가 경전을 권해 달라고 해도 '초발심자경문'을 먼저 읽으라고 권한다. 거기 첫출발의 마음에서 오늘의 의미를 길어 올리자는 뜻이다. 근본 정신이 흩어지면 만사가 헛일 아닌가. 허정 스님은 "절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법을 배우는 본분사에 매진했기에 어법한 도량이 일구어진 것이다.

"지식평등화 시대에 교리로 포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들 지식의 측면에서 아는 것이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잖습니까?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나 출판물도 생활화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식이 아닌 신행과 신앙의 측면에서 승속이 소통하고 절과 가정이라는 공간이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스님이 절이라는 공간에서 대중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포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 비우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스님이 있을 때 도량도 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스님이 주인 노릇을 잘해야 부처님 가르침도 제대로 전해지는데 현실적으로 안쪽의 주인보다는 바깥의 물상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망하게 생각과 마음이 바빠서 그런 겁니다."

절의 주인 노릇에 철저한 것, 그것이 허정 스님의 포교 노하우라고 이해했다. 절은 공간의 의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한 절대진리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삶의 피로를 탈래려고 나선 산책길에서 만난 장엄한 약사여래 앞에서 마음의 병고를 치유 받고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가슴가득 담아 오듯 절은 시공을 초월한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부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유구한 세월동안 많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뭐 깨달았다고 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펼쳐 놓으신 길, 그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어법(佛法)하게, 가르침대로 말입니다. 선사는 선사의 길을 옳사는 옳사의 길을 강사는 강사의 길을 가야하고 재가자는 재가자의 길이 있거든요. 깨달았다고 거기 묵

거는 것이 대안이 아니고 깨달음의 행동을 하는 순간 순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수행자가 되거나 절대프로그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극단이 아니라 특정한 근본에서 이루어지는 단단한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영어를 잘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어 잘 하는 사람이 한 둘도 아닌데 왜 알아줍니까? 스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스님이라는 틀 위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지 영어를 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근본에서 절대성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떠돌아도 허구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두터워야 가지가 무성하게든요(根厚枝茂).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돋우는 역할을 할 때 깨달음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신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복돋우는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더 이상은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허정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아우름'을 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별과 시비를 유발하는 것은 종교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분별과 시비까지도 아울러 보듬는 넓은 도량이 될 때 지혜와 자비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세상은 언제나 캄캄절벽일 뿐.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자빌딩 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제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사찰화재보험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항·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신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인수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호 전화: **010-7344-1881**